

# 나주목사고을시장, 라이브커머스 방송

###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통해 상품 판매 전통시장 새로운 판로 개척 큰 기대감



나주목사고을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안국현)가 전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뜻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을 추구하는 언택트 경제가 부상하면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상인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연거푸 발생한 태풍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극복의 대안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목사고을시장 라이브커머스 방

송은 유튜브에서 '목사고을라이브'를 검색하면 된다.

지난 14일 1회차 방송에서는 순간 최고 시청자수 1700명과 전체 구독자 750여명을 기록했으며 방송시간 2시간동안 4가지 상품이 모두 완판 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오는 24일과 10월 14일로 예정된 시범방송 운영 후에는 공식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전통시장 판로개척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 행복두끼 프로젝트

### 결식아동 문제 해결 민·관협력...내년 7월까지

구례군과 행복얼라이언스, 구례 섬치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SK E&S,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22일 구례군청에서 '구례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구례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결식우려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협약기관이 급식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구례 지역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시락 센터를 통해 도시락을 가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협약은 올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는 아동의 결식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아동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곡성군, 딸기 유기농 고설 베드묘 시범생산 성공

### 국내 최초 딸기전용 고설 유기농 포트묘 3만주 생산



곡성군이 고설 베드 시설을 이용해 유기농 딸기묘를 전국 최초로 생산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딸기는 과채류중 모종생산에 가장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딸기묘는 보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며 전국적인 생산량도 많지 않아기에 일반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부가가치에 주목한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펼쳐 전남도 인정 유기농명인인 이옥신 대표를 통해 친환경 고설 베드 육묘장을 설치하고, 유기 딸기묘 3만여주를 전국 최초로 생산해냈다.

이 대표는 "직접 제조한 퇴비 및 유기액비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받은 미생물배양액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 일반재배묘보다 튼튼하게 묘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육성된 딸기묘는 한살림, 이이쿱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을 통해 11월이면 소비자에게 맛있는 과실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농업기술센터(조현자 소장)는 "불량모종 구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우량묘 생산량 확대를 통한 동반아시아, 홍콩, 일본 등 대외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을 통해 고설베드 육묘시설 보급사업을 실시했다."며, "금년까지 53농가 약 210동의 시설하우스에 공급 가능한 우량 딸기묘 생산기술을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 담양군, 비대면 성묘 독려

### 군립묘원 등 추모시설 방문자제 호소

담양군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성묘를 독려한다.

담양군은 이번 추석 연휴 군립묘원(갑향, 오통공원)과 천주교공원묘원 등에 4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는 서한문 발송, 문자발송, 현수막 등 방문자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추석에 많은 인파가 동시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 추석 연휴 전·후 성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묘원을 이용하는 4,142명에게 성묘 자제 서

한문을 발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성묘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부득이 성묘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반입 금지(상차림 제한), 인원·추모시간 제한, 휴게실 폐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서원 주민행복과장은 "올해는 마음으로 추모하는 것이 가족과 이웃사랑 실천이다"며 "많은 분에게 아쉽고 안타깝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내년도 국비 773억 확보

### 바이오 전략산업·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반영

화순군이 2021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773억 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순군은 백신·생물의약품 분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산업, 농촌지역 신규 개발 사업 등 42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화순 세

연하게 됐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총사업비 460억)·정밀의료기반 맞춤형진단치료제품 연구개발 사업(150억)·기능성 가정간편식(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250억)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 대표적이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화순 세

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한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80억)·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70억)·시군역량강화사업(3억) 3건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도 반영됐다.

역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화순군의 노력이 대규모 국비 확보 성과로 이어졌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등 유례없는 악재에 대응하면서 올해 초부터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비 확보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국정과제와 역점 추진 정책 등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에 발맞춘 정책개발, 중앙 정치권 등의 인적 네트워크도 국비 확보에 주효했다.

군 관계자는 "남은 국회 심의 기간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관련 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부처 포괄사업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곡성 섬진강 레일바이크, 구간 이설

곡성군이 섬진강 레일바이크 운영 구간을 가정역에서 이정역으로 이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차마을로 유명한 곡성군에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가 대표 관광상품의 역할을 해왔다.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에서 출발해 침곡역 구간을 지나 가정역까지 운행되며,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서로 운행구간이 겹치는 탓에 탑승시간과 운행 횟수 등에 제약이 많았다.

곡성군은 레일바이크 운행구간을 이설해 증기기관차와 코스를 분리한 것이다. 증기기관차로 인한 시간제약이 없어지면서 하루 5회 운행되던 증기기관차는 7회까지 운행이 가능해졌다.

곡성=김광휘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